

해외 플랜트 수주 화학설비 56.6%

산자부, 산유국 대형 프로젝트 발주 증가 ... 2002년 100억6000만달러

국내 기업의 해외플랜트 수주가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산유국들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증가하면서 화학설비 수주가 대폭 증가해 전체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6.6%에 이르렀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2년 해외플랜트 수주 규모는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와 원화환율의 급격한 하락세에 따른 수출채산성의 악화로 100억6000만달러를 기록해 2001년 101억4000만달러보다는 0.8% 감소했지만, 1998년 28억달러, 1999년 40억달러, 2000년 84억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동에서의 수주 비중은 이란 사우스와 가스처리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성공하면서 2001년 34.8%에서 2002년 49.1%로, 아프리카는 산유국인 나이지리아 및 앙골라의 해상원유 생산설비 등에서 호조를 보며 18.1%에서 18.7%로 각각 높아졌다.

반면, 아시아는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설비투자 위축,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저가공세 등으로 25.3%에서 23.5%로, 북미지역은 15.6%에서 6.7%로 각각 낮아졌다.

또 산유국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물량이 늘어나면서 화학설비가 56억9000만달러로 2001년보다 142% 늘어난 반면, 해양원유·가스생산 플랜트는 29억2000만달러로 12% 감소했다.

발전·송배전설비도 Enron 사태의 여파로 북미 및 중남미 발전프로젝트가 취소됨에 따라 63% 줄어든 8억2000만달러에 그쳤다.

2001년 8억달러의 수주 호조를 보인 담수화 설비는 일본, 이태리 등 경쟁기업들의 저가공세 등에 따라 수주실적이 극히 저조했다.

해외플랜트 수주액은 중공업계가 40억9000만달러로 전체의 40.6%를 차지했고 건설기업들이 35억달러, 종합상사 6억4000만달러, 엔지니어링기업 5억100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또 현대중공업이 23억3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 15억2000만달러, LG건설 10억달러, 대우조선해양 8억1000만달러, 삼성엔지니어링 4억9000만달러 등으로 파악됐다.

산자부는 2003년에는 미국-이라크 전쟁 가능성과 남미 경제위기 등이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중동 50억달러, 아프리카 25억달러, 아시아 20억달러, 북중미 15억달러 등 모두 110억달러의 수주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 Chemical Daily News 2003/ 01/ 24 >